

## 공동활동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징: 질적 분석<sup>1</sup>

이종한<sup>2</sup> · 김혜숙<sup>3</sup> · 김영진<sup>3</sup> · 김완석<sup>3</sup> · 나은영<sup>4</sup> · 이선이<sup>5</sup> · 조성을<sup>6</sup>

<sup>2</sup>대구대학교 심리학과 · <sup>3</sup>아주대학교 사회과학부 · <sup>4</sup>전북대학교 심리학과  
 · <sup>5</sup>아주대학교 사회학과 · <sup>6</sup>아주대학교 사학과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21세기 한국의 이상적인 공동생활/활동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1차년도 연구에서는 전국 표집을 대상으로 공동생활/활동의 실태조사를 하였다. 본 2차년도 연구의 목표는 1차년도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 바와 본 연구의 궁극적 목적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집단들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현장연구를 하는 것이다. 혈연과 직장에 의한 모임은 제외하고 모임의 특성에서 자발성, 비영리성, 비정치성, 미래지향성, 그리고 보편성을 조사대상모임의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이 기준에 의하여 9개의 공동생활/활동 집단(공동 육아모임, 동창회, 두레마을, 부녀회, 상호회, 평신도회, PC통신모임, 한살림, 향우회)을 선정하였다. 심층면접은 각 집단의 사정을 잘 아는 핵심인물을 상대로 하였으며 면접에서는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면접은 연구원들이 나누어서 하였으나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함께 토론했었다. 공동육아 모임, 한살림 그리고 두레마을은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집단의 설립취지로 하고 있었다. 이 모임들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활동에 대하여 긍지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가치관 또는 행동과 자신들의 일상생활 또는 사회 현실과의 괴리로 인한 갈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봉사를 주된 목적으로 형성된 집단인 평신도회와 부녀회는 자신들의 봉사활동이 보다 여러 사람들에게 보편화되기를 기대하였다. 컴퓨터 통신망으로 들어가 가상 공간에서 집단을 형성한 PC통신 모임은 미래 사회에 새로운 형태의 인간관계의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우리 사회에서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동창회, 향우회 그리고 상호회의 회원들은 친목과 상부상조를 도모하는 것을 자신들의 가장 중요한 일로 간주하였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21세기의 한국인의 포괄적인 사상을 조사하는 것이고, 두 번째 해의 이상적인 공동생활/활동의 모형을 개발하는 것이고, 연구기간은 3년이며, 이 보고서는 2년차 연구의 일부분이다. 첫해의 과제는 전국에서 표집된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한국 사람들의 집단생활에 관한 과제는 대표적인 집단을 선정하여 구성원들의 심리사회적 특성을 보다 깊이 있고 현장감 있는 연구를 하는 것이며 마지막 해는 앞의 연구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공동체의 모형을 구안하는 것이다.

\* 이 논문은 1996년도 교육부 인문 · 사회과학분야 중점영역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임.

제 1차 년도에는 우리 나라 국민들이 일반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공동생활/활동 및 활동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가장 기본적인 혈연공동생활/활동체인 가족과 친족을 비롯한 혈연집단(나은영·김혜숙, 1997), 지역공동생활/활동체인 지역집단과 지역의식, 친목이나 취미활동 집단(이종한·김혜숙, 1997), 사회운동이나 봉사집단, 종교관련 집단에 관한 국민들의 참여정도와 집단의식(즉, 참여만족도, 성원친밀감) 등에 관해 광범위하게 조사하였다(김혜숙·최진호, 1997).

또한 이러한 공동생활/활동과 집단에 관한 활동과 의식이 가장 주관적인 삶의 질의 지표인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살피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제작을 위한 기본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가장 널리 쓰이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인 Diener, Emmons, Larsen과 Griffin(1985)이 개발한 삶에 대한 만족척도(Satisfaction with Life Scale)와, 이흥철(1993)이 표준화한 기본평정척도를 후속 연구를 위해 선택하였고, 성격변인을 통제하기 위해 Scheier와 Carver(1985)의 낙관주의-비관주의 척도를 선택하였다(김완석·김영진, 1997).

2차 년도 연구에서는 보다 심층적으로 개인의 삶에서 공동생활/활동 및 활동이 갖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고 이를 개인적인 삶의 질과 관련시켜 보려 하였다. 삶에 관한 전반적 만족도로서 삶의 질에 대한 개인의 평가는 본 연구의 주제인 공동생활/활동 및 활동 이외의 다른 사회경제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인의 경제적, 개인적 능력을 제외한 다른 환경요인들의 경우는 개인수준이 아니라 전체 국민수준에서 거의 동일한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보다는 우리의 경우처럼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집단주의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김혜숙, 1994; 이종한, 1992; 차재호·

정지원, 1993; Triandis, Bontempo, Villareal, Asai, & Luca 1988)의 경우는 서구사회의 사람들에 비해 자신이 관계하고 있는 여러 유형의 공동생활/활동과 집단들에 대한 소속감과 집단정체감이 개인의 삶에 대한 안녕감과 만족감 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인주의가 일상화된 서구사회에서는 전통적인 형태의 공동체가 이미 대부분 해체되었고, 이에 따라 개인들이 느끼는 고독감과 소외감은 우리 나라와 같은 집단주의적 사회에 비해 훨씬 더 팽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능성은 집단주의적 사회에서는 타인에 의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하며, 개인주의적인 사람들은 이런 사회에서 더 큰 외로움과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는 Triandis 등(1988)의 연구결과를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이들은 일차원적이고 협소하며 이미 파괴된 혈연이나 지연 공동생활/활동을 통한 삶의 의미획득보다는 다차원적이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의 행동양식이나 의식을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개인적 사회적 소외를 극복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사회공동체의 활동이 건강한 시민운동으로 승화되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개인의 삶의 만족을 높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삶의 질과 공동생활/활동의 관계를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공동생활이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갖는 것으로 인식되는가를 연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동생활/활동의 개인적 의미는 각 개인이 특정 공동생활/활동과 관계하는 것이 어떤 기능적 가치가 있는가, 각 공동생활/활동이 주는 만족할 만한 점과 불만족 요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개인의 지각을 연구함으로써 가능할 것이다. 예컨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구에 비해 더 강하게 나타내고 있는 집단활동과 집단에 대한 몰입(이종한, 1992, 1994)은 주로 친족이나 학연 등의 연고집단이라는

공동생활/활동을 통해 나타난다. 이런 연고집단에 소속되는 것은 개인에게 자신의 정체감과 유대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한다. 이에 비하면, 서구사회에서는 연고집단보다는 취미활동집단이나 사회봉사집단에 참여함으로써 서로 독립적인 개인들이 자신의 독특한 정체감이나 유대감을 유지하는 경향이 더 보편적이다(이종한, 1992).

한편, 공동생활/활동과 활동의 사회적 의미는 개인이 공동생활/활동에의 참여를 통해 추구하는 기능충족이 개인의 가치실현이나 욕구충족과는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뜻한다. 우리가 공동생활/활동 및 활동을 통해 추구하는 개인적 가치는 개인에게는 바람직한 것이어도 그 공동체 활동의 사회적 영향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 이런 관계는 공동생활/활동과 활동의 개인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지각하고 인식하는가를 연구함으로써 밝혀 낼 수 있을 것이다.

잠정적으로 볼 때, 개인이나 혈연, 지연과 같은 구성원의 포괄범위가 생애적이거나 항구적이고 또한 사회나 국가전체보다는 집단자체의 이익추구가 더 중요한 목적이 되는 폐쇄형 공동생활/활동보다는 개인의 역사에 관계없이 누구든 참여할 수 있고 또 탈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체집단보다는 그 집단이 속한 국가나 사회전체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할 가능성이 높은 개방형 공동생활/활동 및 활동이 앞으로 더욱 바람직한 형태의 공동생활/활동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인이 주로 참여하는 공동생활/활동 및 활동의 종류에 따라 공동생활/활동에의 참여가 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예컨대, 폐쇄형 공동생활/활동 참여보다는 자발적인 개방형 공동생활/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삶의 질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체 연구의 목표가 바람직한 공동생활/활동의 모형개발 즉, 바람직한 공동생활/활동과 활동은 어

떤 특성을 지녀야 하는가, 바람직한 공동생활/활동 의식이나 행동양식은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인 만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의 삶에서 여러 종류의 공동생활/활동이 어떤 기능을 하는 것으로 인식되는가, 개인적인 기능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사회적인 기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이러한 기능들에 만족하고 있는가, 그 중요성을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가, 또한 이런 공동생활/활동 참여의 기능인식은 삶의 질에 어떻게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차년도 연구에서는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창모임, 향우회, 취미모임과 사회봉사모임, 종교모임 등의 공동생활/활동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이 조사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서 조사한 공동생활/활동과 활동의 유형, 크기, 참여정도와 만족도 등의 일반적 사실 외의 보다 심층적인 자료를 얻도록 하였다. 즉, 각 공동생활/활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와 주요 기능, 만족을 주는 요인과 불만족을 야기하는 요인 및 중요도 등에 대한 보다 세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동생활/활동에 대한 인식과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2차년도에서는 이들 공동생활/활동에 대한 심층적 면접을 조사와 병행하여 실시하였다. 심층면접을 통해 각 공동생활/활동 구성원의 활동양식과 의식, 태도, 공동생활/활동의 이념, 가치관 등의 특성과 기능적인 측면, 공동생활/활동 및 활동이 갖는 개인적 사회적 의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2차년도 연구목표 중에서 본 보고서는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모임들에 대한 보다 현장감 있고 구체적인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선정된 모임에 대한 심층면접을 한 결과이다.

## 방 법

### 공동생활/활동 집단의 선정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본 2차년도 연구의 초점은, 구체적인 공동생활/활동 단위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이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공동생활/활동 집단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느냐이다. 현대 한국 사회에는 여러 다양한 형태의 공동생활/활동 집단이 존재한다. 향촌계와 같은 전통적으로 우리사회에 존재해 왔던 집단이 있는가 하면, PC 동호회 같은 정보사회의 특성을 반영하는 집단도 있다. 아주 구체적인 경제적 이득이나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는 집단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이고 친목을 목적으로 하는 집단도 있다. 실제로 모든 공동생활/활동 단위를 포괄하거나 대표하는 집단을 선정하는 작업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몇 가지 기준을 선정하고 이에 맞는 공동생활/활동 단위를 선정하였다.

첫째 기준은 1차년도 연구에서 중요한 것으로 나온, 즉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집단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에 따른다면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가정(가족, 친족)을 중심으로 한 공동생활/활동이나, 직장을 중심으로 한 활동은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이나, 이미 주어져 있는 것이며 기본 성격에서는 변화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기 힘들다고 보여진다. 즉 본 연구에서 추구하는 21세기의 바람직한 공동생활과/활동의 모형 설정에는 시사하는 바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두 집단과 관련된 공동생활/활동 집단은 제외하였으며, 두 번째 기준으로 자발성을 선정하였다. 즉 성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해 이루어진 공동생활/활동 집단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 기준에 의해 관 주도적이거나 강제적인 공동생활 집단을 배제하였다.

세 번째의 기준은 공동생활의 표면적인 목적이

정치성을 띄거나 영리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역시 배제하는 것이었다. 네 번째는 공동생활의 성격이 미래지향성을 갖고 있는 집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미래지향성이란 앞으로의 사회에 활성화될, 즉 미래 사회에 현상적으로 많이 존재할 것이라고 여겨지거나, 혹은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 정도를 말한다. 다섯 번째로는 아주 특수한 형태나 몇몇 특수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존재하는 집단들은 제외하고자 하였다. 즉 어느 정도의 보편성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생활의 집단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요약하면, 자발성, 비영리성, 비정치성, 미래성, 보편성을 연구 집단 선정의 기본 원리로 사용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이러한 기준과 기준에 맞는 특정 집단의 선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연구자들간의 논의에서 도출한 직관적 판단에 의존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일종의 간편법적인 전략(heuristic strategies)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에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도 제약이 있을 것이다.

### 선정된 공동생활 집단

설정된 기준에 따라서 현재 우리 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집단들 중에서 선정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본 연구의 1차년도 연구결과 중에서 김혜숙과 최진호(1997)의 보고서를 참조하였다. 일차적으로 선정된 집단은 12개로서, 공동육아모임, 동창회, 두레마을, 부녀회, 농촌 상조회, 평신도회, PC통신모임, 환경모임, 향우회, 동호인 주거촌, 등산모임, 노인복지회이었다. 이들 중에서 모임의 대표자와의 면접이 잘 안된 노인복지회와 설문지 조사(이선이·나은영·김영진·김완석·김혜숙·이종한·조성을, 1998)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던 등산모임 그리고 회원의 수가 5가구 뿐이었던 동호인 거주촌은 자료의 분석 과정에서 제외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보고서에서는 심층면접과 설문지 조사

- 141 -

- 피면접인: 이정오(수원 복수동 성당, 여성 신도 연합회 회장), 한말순(총무)
- 면접일시: 97년 5월 24일 3시
- 면접장소: 성당내 농산물 판매소

#### PC통신 모임

- 면접자: 김완석
- 1차 면접 피면접인: 하이텔의 자연사랑 대표  
시샵  
면접일시: 96년 12월
- 2차 면접 피면접인: 나우누리의 직장 동호회  
(직동) 대표시샵  
면접일시: 97년 3월
- 면접장소: 조용한 음식점

#### 한살림

- 면접자: 이종한
- 1차 면접 피면접인: 천규석(상임이사)  
면접일시: 96년 12월 14일 10 : 30  
~12 : 30  
면접장소: 한 살림 사무소
- 2차 면접 피면접인: 천규석(상임이사), 박성희  
(이사, 6년), 김미경(이사,  
5년), 장선화(이사, 3년)  
면접일시: 96년 12월 16일 11 : 00  
~12 : 30  
면접장소: 녹색평론 사무실
- 3차 면접 전화면접  
피면접인: 박성희(이사), 장선화(이사)  
(보충면접) 면접일시: 97년 1월 29일

#### 향우회

- 면접자: 나은영
- 피면접인: 전남 해남 향우회 회장 윤정하
- 면접일시: 97년 3월 23일

### 면접 지침

#### 1. 목적

공동생활이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어떤 의미

를 지니는가를 주로 사회심리적 의미를 중심으로 탐구하며, 그 외에 전체사회의 가치와 문화, 생활양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탐구한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공동생활의 의식과 가치, 행동양식에 대한 기본적인 토대를 이해한다.

#### 2. 방법

공동생활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는 전문가(핵심 구성원)를 대상으로 비구조화 심층 면접을 실시한다. 본 면접은 개인 심층면접으로서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깊이 있는 정보를 탐색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면접소요시간: 1회 당 2시간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필요하다면, 2-3회의 면접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면접장소: 어디든 좋으나, 타인의 방해로부터 자유로워야 하고 쾌적한 곳이어야 한다. 따라서 집과 같은 사사로운 공간보다는 개인 사무실 같은 다소 공식적인 공간이 더욱 바람직하다.

(3) 준비물: 필기도구와 가능하면 녹음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그 외에 면접대상 공동생활에 대한 사전 정보와 지식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서 지참하는 것이 좋다.

#### (4) 과정

① 연구목적 설명: 가능한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의 목적은 공동생활의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에서 왜, 어떻게 행동하고 생각하는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② 신뢰와 라포형성: 면접에 성실하게 접근하고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이 신뢰형성의 지름길이며, 초기에 응답자의 견해를 경청하는 것과 응답자와의 차이점을 부각시키지 않는 것(예컨대, 너무 학문적인 용어를 쓴다거나 하는 등)이 라포형성의 지름길이다.

③ 면접의 진행: 자연스럽고 쉬운 질문을 구사

하도록 한다. 잘 이해하지 못한 경우 설명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응답자의 말을 끊지 않도록 한다. 최종단계에서는 빠뜨린 주제가 없나 점검하고 확인한다.

## 면접 내용

### 1. 공동생활의 형성과정

- 초기 공동생활의 형성을 가능케 했던 기반 또는 계기
- 그 후의 형성과정.
- 초기 구성원의 특징과 그 후의 변화
- 구성원의 이질, 동질 여부
- 인구학적 변인(성, 연령, 교육수준, 직업, 소득, 출신, 종교 등)

### 2. 핵심가치

- 공동생활이 표방하는 핵심가치
- 이런 가치의 공유 정도와 변화
- 공동생활(활동)의 상징물(유래, 의미), 구호, 의식, 유니폼

### 3. 조직화 수준

- 구성원 가입과 탈퇴의 용이성
- 구성원의 자격(조건)
- 구성원의 역할분담정도
- 정관이나 규약의 존재와 구속력
- 재정 관리
- 권력의 구조(의견 수렴의 민주성, 수직 혹은 수평 구조)
- 조직 및 지위 체계의 경직성, 권력의 집중정도
- 회원의 변동(회원수의 변화, 이탈 여부)
- 핵심 성원의 존재 여부

### 4. 상호의존과 교류의 정도

- 중요한 의사결정사항의 종류
- 의사결정 결과의 구속력
- 모임/회합의 빈도(종류, 기능, 예, 이사회, 위원회 등의 존재)
- 상호 의존성(경제적/정치적/심리적)

- 공동의 활동/행사에 대한 구성원의 참여도
- 친밀도, 만족도, 사회적 침투, 혹은 개인의 노출 정도
- 응집성과 정보 공유성

## 5. 주요 활동

- 공동으로 하는 활동의 종류
- 그런 활동의 빈도와 지속성
- 활동내용의 변화와 그 과정
- 활동의 확산과 축소 여부
- 대내 및 대외 활동의 종류
- 공동생활, 활동의 목표 달성 수준 혹은 단계

## 6. 주요사건

- 어떤 의미에서건 공동생활의 구성원들이 중요했던 것으로 인식하는 사건들(공정/부정)
- 이런 사건들의 발생배경
- 이런 사건들이 이후의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 우발적 사건의 발생과 해결 과정
- 대내적, 대외적 갈등의 종류와 내용, 극복 및 해결 과정
- 자신들의 공동 활동에 의미 있었던 사건

## 7. 구성원의 의미 지각

- 공동생활을 통해 구현하려는 개인적인 욕구나 가치의 종류나 내용
- 공동생활을 통해 구현하려는 사회적인 욕구나 가치의 종류나 내용
- 자신의 공동생활이 갖는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영향력(또는 의미)에 대한 인식
- 공동생활의 사회적 바람직성에 대한 인식
- 개인적 삶에서 차지하는 비중
-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행동양식
-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에서 가장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측면과 그 이유
- 구성원들이 공동생활에서 가장 불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측면과 그 이유
- 공동 활동의 기능
- 앞으로의 전망과 기대

## 8. 여러 공동생활/활동 생활간의 갈등, 상충, 혹은 보완여부

- 특히 주요 공동 생활(가족, 지역, 취미 등)과의 상충 정도 혹은 상보성

### 결 과

아홉 가지 모임에 대한 면접한 결과는 각 면접자가 면접한 내용을 모든 연구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발표하고 내용에 대하여 토론하여 보다 깊이 있고 정확한 해석을 하고자 하였다. 앞의 면접 내용에서 제시된 공동생활의 형성과정, 핵심가치, 조직화 수준, 상호의존과 교류의 정도, 주요활동, 주요사건, 구성원의 의미 지각,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등에 대한 각 모임별 면접 내용을 요약하였다. 보다 자세한 면접 내용은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II”(김혜숙·김영진·김완석·이종한·나은영·이선이·조성을, 1997)를 참조하기 바란다. 그리고 각 모임의 생활과 활동의 의미와 면접조사의 결과가 시사하는 바 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종합적 평가는 각 집단의 면접 결과의 마지막에 종합 평가라고 정리하였다.

#### 공동육아모임

##### 형성과정 및 구성원

과정: 어린이의 미래를 걱정하는 모임에서 시작. 비판적인 지식인들로 구성(교수, 출판업자, 의사, 변호사, 사회운동가, 대학원생), 처음에는 서로 모르는 사이. 연남동 공동육아협동조합(우리 어린이집). 회원: 조합원 34가구, 어린이 42명. 자발적 집단

##### 핵심가치

자유로운 자녀양육, 다양한 경험, 자연 친화적 경험, 공동체 형성. 생협활동도 병행. 교사를 별명으로 호칭

##### 조직화 수준

조직적 역할 분담-윤번제 청소(매월, 연2회 대청

소). 부모가 일일교사(격주 토요일). 조합원간에 위계는 없음. 정관과 규칙은 이사회와 총회에서 제정하며 구속력이 높으나 유사시 회원에게 유리하게 적용. 아이 1인당 월20만원이나 사정에 따라서 차등제. 현재 적자 운영. 적극적 조합원(1/2)과 비적극적 조합원.

#####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

정서적이지는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가장 자주 가까이 지내는 관계. 가정생활 및 자녀 양육에서 비밀이 별로 없고, 아이를 서로 맡기기도 하고 이 경우 돌보아 주는 엄마를 공통적으로 ‘엄마’라 호칭한다. 민주적 회의를 강조하며 장시간 진행함.

##### 주요 활동

‘아·마’활동(아빠와 엄마의 일일 교사), 청소당번, 축하잔치, 특별 행사, 아이들 등하교는 회원이 하고 이외의 활동은 학교의 교사가 처리

##### 주요 사건

장소 임대와 재정적 적자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조합원의 재정적 부담의 인상, 마포구청의 허가과 지원으로 해결되었고 이 과정에서 구성원들 간의 결속력이 강화됨.

##### 구성원들의 의미 지각

공동육아의 기본적 이념과 어린이집의 교육에 대하여 조합원들은 대체로 만족함. 시설의 확보와 안정적인 교사의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저 임금). 강한 공동체적 유대 형성에 대한 상반되는 견해

#####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대개 직장 다음으로 이 조합에 관여하지만 다른 활동에 부정적 영향은 별로 없음

##### 종합 평가

육아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해결하여 조합원에게 만족한 경험 제공. 자녀양육을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양육에 관하여 대안적 방법을 꾸준히 논의하여 실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공동체 형성, 양육방식에 대한 검증 그리고 시설과 재정 등의 문

제가 남아 있다

## 동창회

### 형성과정 및 구성원

과정: 부산중학교 17회(1967졸)와 부산고등학교 23회(1970졸)모임. 1980년 공식적/조직적 활동 시작. 회원: 514명 중 447명 활동(부산본회 169, 서울지회 187). 40대 후반, 대학 이상의 교육수준, 성장지,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 등이 동질적인 비자발적 집단.

### 핵심가치

상부상조, 친목 도모, 동기애 고취. 교가, 교표, 뱃지 등 모교의 상징을 그대로 사용. 동교회 기(旗, 부산중고등학교 23회)

### 조직화 수준

대표적 비자발적 집단으로 가입과 탈퇴 자유 없음. 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총무 등 50여명을 임원화 하여 조직력을 강화하고 재원 염출의 수단으로 활용. 조직내의 영향력은 임원의 지위와 재정적 부담 정도와 유관함. 1996년 예산 32,000,000원. 기본적으로 친구 관계이므로 의견 수렴은 민주적, 수평적인 관계로 함. 임원들은 핵심적인 기능 담당

###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

의사 결정은 임원진에서 하며 전체 회원에게 영향을 미치나 회원을 구속하지는 않음. 정기 총회 등 큰 행사와 월례회 등 월 1회 이상 모이고, 졸업 후 5년 또는 10년 단위로 전국단위의 행사. 상호의존이 강한 편이며, 회장의 역량에 따라 기복이 심함.

### 주요 활동

친목도모를 위한 운동, 등산, 취미모임, 가족모임, 하계캠프 등이 있고, 직능별 모임, 전체 동창회 행사와 모교의 행사에 참여. 길흥사 방문. 어려운 회원 돕기 및 자녀를 위한 장학회.

## 주요 사건

졸업 10주년, 20주년 행사가 가장 큰 행사. 주요 활동의 행사들.

### 구성원들의 의미 지각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일수록 강한 의미 부여. 직업적 및 사회적 관계를 넓히는 바탕으로 활용. 길흥사시 많은 도움. 동창 관계로 원하지 않는 강요를 받을 때 곤란. 관계와 활동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기대.

###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동창회 모임으로 가족과의 갈등이 있기도 하지만 함께 참여하여 해결. 직장일과 인간관계에는 큰 도움.

### 종합 평가

전형적인 비자발적 집단으로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는 것을 기초로 하고 있다. 고등학교 동기동창으로 인한 인구학적 속성과 성장배경 등의 동질성 그리고 높은 사회경제적 수준을 바탕으로 강한 응집력과 집단에 대한 만족도를 보인다. 앞으로 이 모임이 더욱 강화되고 활성화되겠지만, 동창회를 초월하여 전체 사회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일 수 있다.

## 두레마을

### 형성과정 및 구성원

과정: 김진홍 목사가 청계천에 세운 활빈교회(1971)에서 시작, 남양만 간척지로 이주(1976)하여 이주자와 주민이 합쳐서 교회와 주민회 결성. 보다 구체적인 생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하여 두레마을 시작(1986). 회원: 113명이 공동거주, 종교적으로 동질적으로 보이나 사회·인구학적으로는 동질성이 낮음.

### 핵심가치

예수 공동체 건설이 궁극적 목적, 농민문화 창조. 노동은 기도의 연장. 공동생활의 가치: 무소유, 무소속, 무저항.

## 조직화 수준

가입은 엄격(20 - 40대의 남녀로 담임목사 추천, 정회원: 4년의 교육과 생활 필요). 훈련생은 훈련비 납부, 준회원과 정회원은 재산 불필요. 탈퇴는 자유로움. 정관과 규약, 기타 사항은 가족회의에서 결정하나 안 지켜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 운영위원회와 부서장회의가 핵심적 권력 행사 기관임. 영농부, 가공부, 퇴비공장 등.

##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

하루 일과(기도, 식사, 작업회의, 공동생산활동, 저녁기도, 자유시간)가 중요하며, 자유시간에는 개인적 친교가 가능하나 상호의존성은 낮음. 개인의 건강과 심리적 문제 등은 목회자를 통하여 해결.

## 주요 활동

통상적인 생활 이외에 가족 한마당, 음악회, 청년을 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이 있음. 기본 생활비 이 외에 약간의 용돈 지급.

## 주요 사건

마약과 술 복용자와 폭력조직 가담자가 마을에 참가하여 문제가 야기되어 잠정적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탈퇴함. 구성원들 간의 갈등은 목회자가 해결

## 구성원들의 의미 지각

구성원 대부분이 두레마을의 기본적 가치를 수용하지만, 재정적 자립 등 현실적 어려움은 활동에 장애가 됨. 사명감을 가지고 공동체 정신을 구현하는 성원의 양성과 경제적으로 자립하여야 하는 과제가 있음.

##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개인 및 가족 생활을 위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여 외부의 가족과 친지를 방문할 수 있음.

## 종합 평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지만 모임의 방향설정의 혼선, 구성원들 간의 인간적 갈등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등 현실적 장벽은 두레마을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생활에서 만족감을 가

지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종교적 생활 공동체에서의 이상과 현실의 차이와 그 저변의 기제는 우리가 미래지향적 생활공동체 형성 또는 공동생활에 대하여 의미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 부녀회

### 형성과정 및 구성원

과정: 수원의 한국아파트에 입주시 하자보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개 동의 대표가 모여서 부녀회 결성. 회원: 아파트의 모든 주부가 회원이 될 수 있지만, 임원 9인을 중심으로 활동. 전업주부로서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 종교단체에서 봉사경험이 많은 사람이 참여하는 점에서 동질적임.

### 핵심가치

“아파트 주민을 위해 필요한 일들, 곳은 일들을 맡아서 하는 봉사정신” 처음에는 부녀회의 활동에 많이 참여하였으나 힘든 일이어서 점차 감소. 초기에는 같은 앞치마를 착용하였으나 지금은 없고, 최근 다시 착용할 가능성이 있음

## 조직화 수준

가입은 언제나 환영이고 탈퇴는 후임자를 정하고 함. 회칙이 있으나 구속력이 없고, 3 - 5명의 임원이 일을 맡아서 함. 회장, 총무, 서기가 수평적 구조로 협의 결정. 주위 상인들의 기부금과 불우 이웃 돕기 찾집 수입으로 재원 충당, 노인정 찬조, 관리소 야식과 행사비로 지출.

##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

월례회, 총회, 임시총회 등이 있으나 참여율이 낮아 반상회를 이용하여 의견 수렴하고 결정. 원래 친하였던 사람들이 함께 임원을 맡고, 전체적인 응집력은 약함. 공동구매를 통해 서로 경제적 협동.

## 주요 활동

주민의 공동생활에 관한 다양한 활동: 문화사업(교양, 취미, 체력향상), 노인복지, 환경미화, 알뜰시장, 바자회, 불우이웃 돕기, 분리 수거, 관리 사

무소 야식. 활동이 점차 감소하는 경향.

#### 주요 사건

노인정 여행 안내: 큰 보람. 비참여 회원의 불평 듣기. 기존 상가와 단지 내에서는 비상설 상가와  
의 갈등.

#### 구성원들의 의미 지각

소수의 봉사정신이 강한 사람은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은 방관 또는 비난하는 자세. 다수의 '마지못해 하는 사람'보다 적은 수의 '기꺼이 봉사하겠다'는 사람으로 구성되기를 원함.

####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직장을 가진 주부는 시간이 상충되어 부녀회의 일을 할 수 없음. 부녀회의 일이 당사자의 시간을 빼앗아 가지만, 집안일과 병행할 수도 있고 이웃을 많이 알게 되는 장점도 있음.

#### 종합 평가

공동생활을 위하여 봉사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주체가 소수에 한정되어 문제가 있다. 엄격히 본다면 몇몇 핵심적 인물에 의해 움직이는 부녀회를 공동생활/활동의 단위로 볼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 상조회

#### 형성과정 및 구성원

과정: 해방 전에는 마을에 초상이 났을 때 양반과 부유층이 상여지는 일에 머슴을 대신 보내는 폐단이 있어서 해방 직후에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방초3리 공조단을 결성(경기도 안성군 일죽면). 사회적 평등을 지향하고 구성원 전체의 상호부조와 유대 강화. 회원: 청년은 상여를 지고 노인(55세 이상)은 산역을 맡음.

#### 핵심가치

전체 구성원의 유대의식을 강화하고, 효심, 형제간의 우애, 이웃간의 정을 중요시 함. 장례시 상조회를 통해 하는 것이 수월하고 경제적임을 공감.

#### 조직화 수준

전체 80여 호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새 전입자는 쌀 1말로 가입비 내어 마을의 공동행사에 참여권 획득. 이사갈 때만 탈퇴 가능. 명문화된 회칙 없이 관례로 행하나 문제나 부작용은 없음. 회장은 이장이 겸하며 3명의 반장이 있음. 회비는 따로 없고 초상시 당사자가 50만원 정도 부담해 상을 치르고 사정에 따라서 환불하기도 함

####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

상례와 결혼식 등이 점차 간소화되고 외부의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서로의 부담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그러나 상계(장례비용), 혼계(결혼비용) 등 연령별 친목회 등이 생겨서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계승하고 있음.

#### 주요 활동

상례 이 외에 연초의 대동제를 함께 준비하고, 공동토지를 공동으로 경작하여 마을의 기금으로 사용함.

#### 주요 사건

과거에는 상두군이 천하다 하여 참여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었으나, 요즈음은 젊은이들이 흥미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문제 해결됨. 과거의 신분 차별의 관념을 극복하고 오히려 민속에 호기심을 보이는 효과가 생김.

#### 구성원들의 의미 지각

구성원이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여 이러한 상조회 활동에 협동적이고 만족하는 편이며, 동네 청년들의 유대를 돈독히 하고 효도를 교육하는데 효과적이라고 여김. 상조회는 현재 상태로 지속될 것으로 전망. 이 마을에 살던 사람이 와서 장례를 치르고자 할 때 도와주는 방안을 고려중.

####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가정의 대소사에 관한 도움을 주므로 가정 또는 가족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인.

#### 종합 평가

과거의 신분제에 의한 불평등을 지혜롭게 극복하

면서 전통적인 마을공동체의 기능을 상부상조하는 정신으로 되살린 성공적인 공동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는 구성원의 직업이 대개 농업인 시골이라는 조건에서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정신과 조직을 어떻게 도시 상황에 접목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 평신도회

### 형성과정 및 구성원

과정: 수원시 북수동 성당은 73년의 역사를 지녔으며 초창기부터 여신도들의 자발적 봉사 모임으로 현재에 이름(여성신도연합회). 회원: 성가대, 헌화회, 자모회, 레지오단 등 성당의 하위모임의 간부 40여명으로 구성되며 나이는 대개 50세 이상임.

### 핵심가치

본당의 여러 활동에 관련된 봉사. 이를 통하여 자신의 종교적 기여를 인지하고 확인함.

### 조직화 수준

성당 내 하위모임의 간부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므로 정관이 있으나 구속력이 약함. 서로 책임을 미루어 소수의 인원내 역할부담이 집중됨. 임원 선출과 의사 결정은 투표로 하며, 안건을 토의한 후 수녀와 신부에게 상의하여 결정함

###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

총회, 임시총회, 교구운영위원회 등의 모임. 핵심 구성원들(여성연합회 회원 40여명) 간에는 심리적·경제적 의존이 큰 편이지만, 일반 회원들 간에는 유대관계가 약함.

### 주요 활동

각 하위모임별로 정해진 활동을 수행. 대체로 성당 내의 일로 집중되나, 레지오 단원은 사회봉사에 참여하고 여러 하위모임이 연합하여 행사하기도 함.

### 주요 사건

회원들 간에 사소한 갈등이 있기도 하고, 신부 또는 수녀와 의견 대립하기도 하지만 수녀와 신부

의 의견으로 수렴.

### 구성원들의 의미 지각

핵심 회원들은 자신의 신앙을 공고히 하는 수단으로 활동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보람도 느끼지만, 그 외는 참여율이 낮고 소극적임. 노년층에 비하여 젊은 층의 참여가 아주 저조함.

열심히 활동할 임원을 구하고 전반적인 참여율을 올릴 수 있는 묘안이 없어서 걱정임.

###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핵심 임원들은 아주 많은 시간을 투여하여야 하므로 가족의 이해가 필수적임.

### 종합 평가

핵심 임원의 경우에는 신앙생활과 연계된 공동생활로 신앙적 헌신이 바로 공동활동이 되고 또한 보람과 만족으로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 봉사활동에도 그 기저에는 인간관계나 사교의 욕구가 있다는 점이 유의할 점이다. 종교적 모임의 특성 또는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종교 지도자인 수녀와 신부에 대하여 종속적 관계를 가지게 되어 모임 자체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점이다. 핵심임원 이 외의 여신도들의 소극적 참여가 해결하여야 할 문제로 남게 된다.

## PC통신 모임

### 형성과정 및 구성원

과정: 비슷한 관심과 흥미를 가진 사람들이 PC 통신의 대화실에서 소모임으로 활동하다가 94년 12월 직장 동호회(나우누리)를 정식으로 결성. 자연사랑(하이텔)의 경우는 개인이 통신상에 취지문을 올려서 이에 호응하는 사람들이 동호회로 결성. 전형적인 자발적 집단. 회원: 초기에는 학력, 연령, 직업, 지역 등이 다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유사성을 가진 사람들이 회원으로 남게 됨. 직종은 20 - 30대의 젊은 직장인 중심이 되었고 또한 수도권 지역으로 동질화됨. 자연사랑은 인구사회학적 구성은 다양하나 회원의 60%가 인문지리,

환경, 동식물학, 사진 등 자연관련 전공자로 동질적임.

#### 핵심가치

직동: 친목과 정보교환. 자연사랑: 자연/환경 사랑과 정보교환. 때로는 단순한 취미의 공유나 친목을 넘어서 사회적 관계의 의미도 부여함.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통신사의 상징물(나우개비와 하이텔 로고)을 사용.

#### 조직화 수준

불가능하지만 시댁이 조건을 엄격히 심사하여 입회여부를 동호회로서 조직과 규약이 있으며, 회원자격의 제한은 결정하거나 참여빈도에 따라서 회원의 수준을 결정 탈퇴는 자유로움. 부시댁이 맡는 소모임도 있음.

####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

직동의 경우 거의 매일 대화방이 개설되어 상호 교류가 잦으며, 직접 만나서 교류하기도 하여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도 함. 젊은 직장인과 여성들은 기존의 사회질서(나이, 직급의 상하관계)를 벗어나 의존적 관계로 활용.

#### 주요 활동

on-line활동은 주당 1-2회 정도 대화방을 통한 활동이고 off-line활동은 월 1회 정도이며 원래의 활동취지를 실천. 체육대회와 같은 행사도 통신사의 지원으로 개최. 이 외에 시댁선거를 민주적 방식으로 흥미롭게 진행

#### 주요 사건

직동은 통신사 동호회와 체육대회 2차례 개최하였고 친목의 취지를 살려서 회원 내에 세 쌍의 결혼이 있었음. 자연사랑은 방송사의 취재에 응하여 마스크를 탄 사진이 있었음.

#### 구성원들의 의미 지각

동호회의 결성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에 참여하여 재미를 느끼며 다양한 사람을 사귀는 기회로 활용하나 자신의 활동에 대하여 사회적/정치적/경제적 의미의 부여는 하지 않음. 운영진과 20-30명의

적극적인 참여자는 생업 다음으로 시간을 할애하지만 일반 회원은 부정기적인 오락 수준임. 동호회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서 공동체를 확대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

####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일부 열성회원을 제외하고는 다른 공동생활에 방해가 되지 않으며, 일반회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율이 저하되는 경향을 보임.

#### 종합 평가

기존의 혈연, 학연, 지연 등과는 무관하게 가상 공간에서 만나는 정보사회의 공동체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공통된 관심에 따라서 행동하는 특성이 있으며 사회적 가치나 공헌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매체를 통한 모임의 특성이 자유로운 의사개진, 민주적 운영과 기존의 사회적 질서로부터 탈피 등으로 나타난다. 미래사회의 공동체의 한 모습이라고 해석된다.

#### 한살림

##### 형성과정 및 구성원

과정: 먹거리를 매개로 환경보호를 원천적으로 실천하자는 도농 공동체의 논의가 1990년에 대구 한살림 모임으로 발족. 회원: 634가구(759가입, 145탈퇴), 외지출신의 지식인층, 높은 사회적 관심의 공통성, 소득수준은 중간 정도, 30-40대 주부가 주로 활동, 자발적 집단

##### 핵심가치

먹거리를 통한 원천적 환경보호. 생활개혁을 통한 환경보호: 근검절약. 쓰레기 줄이기. 밥그릇 모양의 상징 그림

##### 조직화 수준

한살림의 이념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2시간의 교육과 입회금 5만원으로 가입. 13인의 이사회와 상근자 3명의 사무실이 있고, 회원들은 거주지 단위로 10가구 미만으로 공동체 형성.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하며, 민주적 절차와 자유

를 강조하지만 한 살림의 이념은 벗어나지 못함.

####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

매주 월요일에 모이는 이사회에서 공급할 물품과 가격 등을 결정하고 신입회원 교육도 함. 거주지 단위의 공동체(5내지 10가구로 구성) 중심으로 매주 먹거리를 공급받을 때 서로 만남. 일년에 한 차례 경남 창녕의 자체 농장에서 총회 겸 야유회(30-40 가족 참여). 공급 먹거리에 대한 안내지 가끔 우송.

#### 주요 활동

유기농법으로 생산된 먹거리를 회원에게 공급하고 환경보호 운동을 권장하는 일. 거주지의 공동체 단위로 매주 주문 받고 공급함.

#### 주요 사건

1996년 12월 갑작스러운 추위로 결이 언 배추 공급: 유기농산물에만 집착한 소수의 회원은 회비 환불과 함께 탈퇴하였으나, 기본 취지를 이해하는 회원은 잔류. 자체 농장 구입: 경남 창녕, 8,000평

#### 구성원들의 의미 지각

한살림의 이념을 이해하는 회원은 유기농산물의 공급을 넘어서 환경보호, 이웃사랑 등을 실천함. 이 운동의 제안자이고 상근자인 천규석 선생의 생활이 회원들에게 영향을 많이 줌. 활동 초기에는 가족간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큰 만족 작은 불만'으로 극복한 회원이 계속하여 잔류함. 자체 농장의 활성화와 자녀와 이웃에 확산되기를 기대함.

####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한살림에서 공급하는 제한된 품목의 유기농산물로 인하여 가족의 식생활에 갈등이 생기기도 하지만, 일반 먹거리와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서 해결함. 자녀와 남편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임.

#### 종합 평가

먹거리를 통하여 환경보호를 원천적으로 시도하고 근검절약과 쓰레기 줄이기 그리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한살림의 이념과 운동은 사회정의의 실현

현하고자 하는 자발적이고 전형적인 시민운동으로 해석된다. 회원들의 사회적 성향이 미래 지향적이고 사회에 대하여 개혁적인 가치관을 가진 소위 지식층임을 고려할 때 이러한 운동이 전체 사회로 확산될 가능성에 대하여는 의구심이 생긴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하여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향우회

##### 형성과정 및 구성원

과정: 전남 해남을 떠나서 서울에 사는 향우들이 초·중·고 동창회 결성과 아울러 향우회를 결성. 자발적 참여. 회원: 초기에는 공무원, 회사원, 사업가 중심으로 임원을 담당하고 기타 회원은 향수를 달래려고 참석. 회원: 해남출신이나 2세로 경인지역에 사는 20세 이상의 남녀 성인. 회원은 약 2만 명, 핵심회원은 5-6백 명. 고향이 해남이라는 동질성 이외에 나이, 사회/경제적 이질성은 상존.

##### 핵심가치

고향 사랑(애향심)을 기초로 충효사상과 애국심도 고취시킴. 향우간의 친목 도모, 경로사상 등으로 자부심 느끼며 핵심가치를 공유. 해남의 상징은 두륜산, 진도연육교, 망쥬, 동백. 회지는 海南으로 9집 발간.

##### 조직화 수준

고문, 자문위원, 지도위원, 회장, 이사, 집행위원 등이 있으며 향우회칙과 이사회 운영규칙이 있음. 운영위, 임원위와 총회에서 민주적으로 의사결정, 회장과 집행부가 강하지만 회원은 순응함. 14개 읍/면별로 향우회 조직.

#####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

정기 총회(연 1회), 송년회, 하계수련회, 고향방문. 임원회는 3-4회 정도. 읍/면 단위의 향우회가 별도로 모임을 가짐. 공식·비공식으로 친목을 다지며, 길흉사시 상부상조하는 미덕, 타 시도에 비해 단결을 잘 하고 우월

## 주요 활동

정기 총회(연 1회), 송년회, 하계수련회, 경로잔치, 농수산물 직판행사, 체육대회, 전남과 광주의 향우회와 도정 보고회 참석, 장학기금 조성

## 주요 사건

농수산물 직판 행사: 연2회, 매회 2트럭 정도(3-4억원) 구매.

## 구성원들의 의미 지각

향수와 애향심을 바탕으로 개인적·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며, 객지에서 동향인들 간의 정서적 유대를 이어가는 좋은 계기로 여김. 앞으로도 발전적이길 기대하며 장학기금 확충에 힘씀.

## 다른 공동생활/활동과의 관계

회장 등 책임자는 향우회 행사와 길흉사 참석으로 개인 생활의 희생이 많은 편임.

## 종합 평가

애향심과 향수를 바탕으로 한 동향인들 간의 친목도모와 상부상조하는 정신을 유지하는 모임이다. 객지에 살면서 고향에 대한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경노사상 등 전통적인 가치와 태도를 교육하는 기능도 한다. 일부의 회원들은 자신의 정치적 또는 직업적 목적에 향우회를 이용하기도 한다.

# 논 의

아홉 개의 집단에 대한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가 시사하는 바를 8가지 항목에 따라서 각 집단의 특성을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형성과정을 비교하면,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의 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는 공동육아모임, 두레마을, PC통신 모임 그리고 한살림을 들 수 있다. 이들 모임의 회원들은 각 단체의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스스로 입회하였다. 회원에 대한 자격요건과 간단한 절차가 있기는 하지만, 집단의 경계가 경직되어 있지는 않다. 즉, 누구나 설립취지에 찬성하고 모

임에 대하여 적극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발적 집단이다. 이에 비하여 동창회, 상조회, 평신도회, 부녀회 그리고 향우회는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조건을 미리 갖추어야 하며, 이러한 조건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원이 되기도 하는 비자발적 집단이다. 다시 말하면, 동창회의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특정 학교를 졸업하여야 하고 향우회회원은 한정된 지역 출신이어야 한다. 상조회는 같은 동네에 거주하는 사람들만 회원이 될 수 있고 평신도회와 부녀회도 특정 종교단체와 아파트의 구성원들이 회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집단들의 경계는 상대적으로 경직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비자발적 집단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본인의 의사와 자발적 참여가 전제되기도 한다.

집단의 핵심가치는 자발적 집단과 비자발적 집단의 일반적 특성과 그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발적 집단의 핵심가치는 사회정의 구현 또는 가치 실현적 성향을 띠고 있다. 공동육아 모임은 자녀 양육을 함께 하면서 기존의 양육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양육방식을 탐색하고 추구하는 실험적 정신이 저변에 깔려 있다고 해석된다. 두레모임은 종교적 신념을 바탕으로 한 생활공동체를, 한살림은 도시와 농촌을 연계한 환경보호운동을 그리고 PC통신 모임은 가상공간에서의 만남으로 자신들의 공동관심사를 실천하는 실험을 하고 있다. 이들 집단의 구성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의 활동과 모임에 대하여 상당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신도회와 부녀회는 봉사정신을 핵심가치로 삼고 있으며, 동창회, 상조회 그리고 향우회는 친목과 상부상조를 가장 중요한 집단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가치실현적 모임에서는 자신들이 소속한 집단 이외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는 반면에 친목과 상부상조를 중요시하는 모임에서는 그 속성으로 인하여 집단의 구성

원에 한정된 관심을 보이는 경향이 있었다.

집단의 조직화의 수준은 모든 집단이 형식적으로는 다양한 위계의 조직체계(고문,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총무 등)를 갖추고 있으나, 국가 기관과 같은 공조직에서 보이는 수직적 관계는 약한 반면에 대체로 수평적이고 민주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규모가 작은 공동육아모임은 조직의 결속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의 모든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현상은 대표를 포함한 핵심 구성원들로 조직된 집행부가 관례적인 일을 집행하지만 독선적이지는 않다는 점이다. 대면관계가 아닌 가상공간에서 조직을 운영하는 PC통신 모임의 대표들은 결정권이 많은 것 같았다.

집단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의존 및 교류의 정도는 집단의 크기와 반비례하였으며, 몇가지의 집단별 특징을 보였다. 향우회, 부녀회, 동창회 그리고 평신도회는 핵심 구성원들의 응결력은 강하지만 나머지 전체 구성원들의 결속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살림은 주거지역단위의 공동체 구성원들(5가구 내지 10가구 정도) 간은 매우 친밀하지만, 전체 구성원들과는 별로 관계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었다. 공동육아 모임, 상조회 그리고 PC통신 모임은 거의 전체 회원들이 다 함께 참여하는 것으로 보였다. 두레 공동체는 구성원들 상호 교류도 있지만 집단을 이끄는 목회자를 중심으로 하여 서로 의사소통하는 특징이 있었다.

주요 활동과 사건은 각 집단의 설립 취지와 핵심가치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한 사건들도 있지만, 대체로 집단의 취지에 부합하고 회원들의 중론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해결하였다.

구성원들의 집단에 대한 의미지각은 모든 집단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치지향적인 모임 중에서 공동육아 모임과 한살림의 경우는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히 강하다

고 하였다. 그러나 이 부분의 해석에 있어서는 한 가지 고려하여야 할 점이 있다. 면접대상자들이 각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핵심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집단에 대한 의미와 이들이 대변하는 구성원들의 의미지각은 당연히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이 감안되어야 할 것이다. 두레마을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과 당면한 현실적 문제 사이에 생기는 차이로 인하여 자신들의 집단과 활동에 대하여 회의적인 회원도 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주의할 대목이다.

다른 공동생활 또는 활동과의 관계는 주로 가정생활 또는 가족의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되었다. 공동육아 모임과 한살림은 가족이 함께 활동하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되는 상황이므로 가정생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동창회는 직장일과 인간관계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고 하여서 친목과 상부상조에 추가되는 부가적인 이득이 있다고 하였다.

앞의 방법에서 언급한 노인복지회, 등산모임 그리고 동호인 거주촌이 심층면접 또는 설문조사과정에서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자료분석에서 제외된 점이 아쉽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하여 점차 수가 늘어나는 노인에게 관한 집단에 관한 연구는 앞으로 꼭 하여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생활주변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모임인 등산모임이 이번 조사에서 빠지게 된 점도 유감으로 생각한다. 면접과 조사방법을 보다 더 신중히 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접근한다면 귀중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소규모모임은 하지만,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 형성되기 시작된 동호인 공동주택은 미래지향적 이웃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본 면접조사의 대상집단의 선정이 1차년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자들의 논의에 의하여 된 것이므로, 비록 논리적 과정을 거쳤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공동생활의 실상을 완전하게 대표하였

다고 볼 수는 없다. 바람직한 미래형 공동생활을 구상하는데 관련이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공동생활집단을 의도적으로 표집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결과를 해석하여야 될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의 의도가 폐쇄형 집단 또는 비자발적 집단 보다 개방형 집단 또는 자발적 집단을 잠정적으로 더 선호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의 결과를 우리 나라의 전체 공동생활에 일반화 하여 해석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본 면접에서 반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깊이 있는 면담을 하기는 하였지만, 한정된 숫자의 핵심인물과의 면접이므로 항목에 따라서는 편향된 자료가 수집되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선이 등(1998)의 질문지 조사를 통한 보다 구체적인 결과와 대조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면접조사의 과정과 결과가 가지는 의미는 무엇 보다 공동생활을 하는 모임에 대하여 현장감 있는 면접을 하여서 자료를 수집하였다는 것이다. 우리 나라에서 개인 또는 사회생활에 관한 심리학의 연구는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온 개념과 이론의 틀을 한국이라는 사회문화적 상황에 적용하여 실험실이나 현장에서 실험변인의 조작이나 질문지를 사용하여 경험적 자료를 구하는 경향이였다. 다시 말하여 통계적 처리가 가능한 구체적인 측정치를 바탕으로 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고 본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관행적 연구는 심리학의 연구를 객관적으로는 할 수 있게 하지만, 이러한 접근은 수량적 자료에 편중되게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의 연구에서 질적 측면을 간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다. 특히 본 연구와 같은 삶의 질에 관련된 주제를 연구함에 있어서는 조사대상자의 주관적 체험과 느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과제에 대한 질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본 연구는 3년 계획의 일부분으로서 현장에서 측정치를 구하기 전 단

계로서 조사 대상모임의 핵심인물의 주관적 체험과 느낌에 대한 심층면접을 한 질적 접근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김완석·김영진(1997). 주관적 안녕 척도: 공동생활 및 활동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61 - 81.
- 김혜숙(1994). 한국 집단자아존중 척도. 한국심리학회지:사회, 8(1), 103 - 116.
- 김혜숙·김영진·김완석·이종한·나은영·이선이·조성을(1997). 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II.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분야 중점영역 과제연구. 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혜숙·최진호(1997). 한국인의 모임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41 - 60.
- 나은영·김혜숙(1997). 한국의 가족 및 혈연 공동생활과 삶의 만족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3 - 17.
- 이선이·나은영·김영진·김완석·김혜숙·이종한·조성을(1998). 공동생활 집단의 심리사회적 특성: 양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4(1), 157 - 177.
- 이종한(1992). 공동체의식에 관한 개인주의-집단주의 관점에서의 비교문화적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2), 76 - 93.
- 이종한(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1), 83 - 94.
- 이종한·김혜숙(1997). 한국인의 지역공동생활과 주관적 안녕감.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3(1), 19 - 39.
- 이흥철(1993). 정서상태가 기억수행 및 주의편향에 미치는 효과. 미발표 박사학위 청구논문, 고

려대학교 대학원

차재호 · 정지원(1993). 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집합주의.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7(1), 150 - 163.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 - 75.

Scheier, M. F.(1985). Optimism, coping, and health: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 - 247.

Triandis, H. C., Bontempo, R., Villareal, M. J.,

Asai, M., & Luca, N.(1988).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 Cross-cultural perspectives on self-ingroup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323 - 338.

Triandis, H. C.(1989). The self and social behavior in differing cultural contexts. *Psychological Review*, 96, 506 - 520.

Warheit, G. J., Bell, R. A., & Schwab, G. J.(1977). *Needs assessment approaches: Concepts and methods*. DHEW Pub. No. (ADM) 79 - 492.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ion in Group Activities in Korea: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Key Informant Interview

Jonghan Yi<sup>1</sup>, Hai-Sook Kim<sup>2</sup>, Youngjin Kim<sup>2</sup>, Wan-Suk Gim<sup>2</sup>,  
Eun-Yeong Na<sup>3</sup>, Suni Lee<sup>2</sup> and Sung-Eul Cho<sup>4</sup>

<sup>1</sup> Department of Psychology, Taegu University

<sup>2</sup> Department of Psychology, Ajou University

<sup>3</sup>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up>4</sup> Department of Sociology, Ajou University

<sup>5</sup> Department of History, Ajou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sycho-social characteristics of the members of nine different groups in Korea. The nine groups were sampled by the criteria of voluntariness, non-politics, non-profit, future-orientation, and universality. Included among the groups sampled for this study are an alumni association of a high school, a hometown association, a rural coop, a neighborhood women's association, a voluntary group of a church which were more typical types of groups in Korea. The rest includes more atypical and novel types: a child-care coop, religion-based commune, an environment protection group, and a computer-mediated society. The interview was conducted with the key informant of each group with a semi-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showed that a social-value orientation was the major issue for the members of the more atypical groups like the child-care coop, the environment protection group, and the religion-based commune. But they had some conflicts between their own purpose of their groups and the barriers in their daily life as well as the reality of the Korean society. The groups interested in voluntary service, the voluntary group of a church and the neighborhood women's association, showed some difficulties in disseminating their activities. The computer-mediated society suggested a new possibility to build an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cyberspace.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the members of the more typical groups such as the alumni association, the hometown association, the rural coop, were more interested in sharing their friendship and the spirit of mutual help.